

인간적 감정 풍부한 숨겨진 개의 삶

엘리자베스 토마스 지음 「숨겨진 개의 삶」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우리의 동물에 관한 지식은 상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개는 꿈을 꿀까?”와 같은 질문이 그렇다. 고양이들이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는 알 수 있어도, 사실 개가 무슨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개들이 자신의 불행했던 유년시절에 관한 꿈을 꾸다고 상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간접적인 예시이긴 하나, 아프리카에서 생장했던 ‘미카엘’이란 이름의 고릴라는 미국에 건너와 ‘상징언어교육’을 받고서 확실하게 자신이 슬프다는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왜 슬프냐고 물으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장면과 관련지어 설명해냈다.

짐작컨대 동물들의 감각(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또는 적어도 우리와는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사냥꾼들이 어미 코끼리를 죽이고 그 상아를 뽑아낼 때, 이 장면을 지켜본 아기 코끼리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코끼리가 무엇을 경험했건간에, 우리는 그 코끼리의 행동을 기껏 단순한 본능적 행위로 치부할 뿐 코끼리의 행동이 어렸을 때의 충격적인 기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마셜 토마스(Elizabeth Marshall Thomas) 여사는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이기도 한데 그녀는 이 두 분야에 관한 한 친분의 자질을 타고났지 싶다. (인류학자로서 그녀는 「무해한 인간」 「戰士와 牧童」 등의 관계 저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작가로서 그녀는 「馴鹿의 달」 「그 짐승의 아내」 등의 소설을 남겼다) 그녀는 이 두 분야에서 공히 주도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명료하고 깊이있는 글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녀의 최근 저작 「숨겨진 개의 삶」(“THE HIDDEN LIFE OF DOGS”, Illustrated, 148 pp. Boston : A Peter Davison Books.)은 개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계발적이고, 많은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하다. 특히 지난 여름 식용으로 사라진 한국 땅의 견공들에 대한 초흔제의 의미로서도 일독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제와서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별로 새롭지 않다. 그간 동물학자들의 많은 연구에 의해 이 점들은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학계의 연구를 요약하자면 그 동안



개도 사람처럼 동정과 사랑, 실망 등의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우리 인류(인간이라는 동물유형)들만이 가진 것이라고 상정했던 ‘언어’나 ‘美的 감각’이 결코 다른 동물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로 개가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개가 복잡한 사유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개들도 동정과 놀라움, 존경, 사랑, 실망 그외에 슬한 미묘한 감정들을 느낀다고 한들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들이 확실하게 감정을 해독하여 행동하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신호(sign)를 읽을 수 있으나, 없느냐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 점이 저자 토마스가 이 책 속에서 명료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저자는 놀랄만큼 창발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개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있다. 그녀는 개들을 풀어놓고 그들의 행태를 관찰했는데, 가능한 한 개들과 어울려 장난치면서 그들의 느낌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여태 어느 동물학자보다 깊숙히 ‘개들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권위를 누리고 있는 저명한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명저 「인간과 개의 만남」(“Man Meets Dogs”) 속에서조차 제시되지 않았던 견해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개들을 한마리, 한마리씩 불러가며 길렀다고 한다. 첫번째 놈이 ‘빙고’라는 이름의 수컷 발바리였는데, 신체적 특징은 애꾸이고, 심리적 특징은 자존심이 굉장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바이올렛’이라고 이름 붙인 암컷 발바리였는데 빙고를 사랑하여 갖은 교태를 부렸지만 빙고로부터 사랑을 얻어

내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 다음이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빙고를 사로잡은 ‘마리아’라는 묘령의 암컷. 그러나 끝내 빙고의 구애를 뿌리친 마리아는 이웃집의 긴장한 수컷 ‘미샤’와 사랑에 빠져 살림을 차리고 여기서 자식도 네 마리나 보았다.

이들의 사랑은 극진한 데가 있어, 근 2년여 동안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부부가 나란히 온 동네를 산책하여 인근 개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자도 이 아름다운 산책에 동행하여 그들의 사랑놀이(?)을 진지하게 관찰했다고. 이 속에서 저자는 개들이 거리를 산책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갖은 행동도 결코 ‘생략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학습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개들의 행동 속에도 인간의 행동만큼이나 다양한 능숙함과 서투름 사이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

그러나 미샤와 마리아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데, 미샤네가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이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그녀는 맥을 놓고 축 처져 깊은 침울에 빠졌다”고 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런 일련의 사랑이야기는 사랑이 결코 인간의 독점물이 아님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저자가 “침울에 빠졌다”라든지, “결혼” “아내” 등속의 단어를 개들에게 쓸 때, 좀 튀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토마스 여사는 결코 이런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비유법적 표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저자의 깊은 관찰 끝에, 즉 ‘이 단어가 아니면 이들의 삶을 설

명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만 쓰고 있다.

사실 그간 동물학계의 논의는 야생동물의 삶에 관한 것(예컨대 신시아 모스의 「코끼리 비망록」) 또는 길들인 짐승들의 경우 주로 그 짐승과 인간간의 교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 「숨겨진 개의 삶」은 이 틈새, 즉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간의 사랑과 증오, 욕망과 좌절을 개들의 문법에 따라 설명해냄으로써 개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열고 있다. 이 점은 실로 불교에서 논하는 인연법, 또는 연기설을 뒷받침할만한 것이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바 크다. ‘호모 사피엔스’라니, ‘호모 에렉투스’라니 하여 인간 중심론에 경도된 오늘날의 우리가 개들의 삶을 통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라.

피카소 명성에 가려 덜 알려졌던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 재조명

지난 해 런던의 화이트 채플 미술관에서 후안 그리스(Juan Gris)의 유화와 데생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전시회의 카탈로그로 여길만한 저작이 발간되었다. 런던 소재 쿠틀드 연구소의 미술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미 「큐비즘과 그 적들 : 근대적 운동과 프랑스 화단의 반응, 1916-1928」이라는 주목할 만한 저작을 발표했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의 관리 책임자로 재직중인 카린 폰 마우르(Karin von Maur)에 의해 상재된 「후안 그리스」(“JUAN GRIS”, Illustrated. 311 pp.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가 그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도판과 해설, 그리고 저자들에 의한 7편의 논문을 일별하다 보면 이제야 그리스의 예술과 삶을 곰곰히 성찰할 때가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사실 그는 여태 피카소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책의 발간을 기점으로 그리스와 피카소의 비교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스의 삶이 우리들에게 낯설었던 까닭을 따져보면 우선 그의 삶이 무척 짧았던 데서 기인하지만, 이외에도 그의 삶이 동시대의 막

스 자콥이나 아폴리네르, 제르트루드 슈타인 그리고 장 콕토 등의 화려했던 삶에 비해 무미건조했던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스는 19세 되던 해 그의 고향 마드리드를 떠나 파리에 정착한다. 2년 후인 1908년 그는 몽마르트의 허름한—아니 거의 쓰러질 듯한 건물의 한칸을 세내어 화실로 삼았다. 머지않은 곳에 피카소가 이웃하고 있었고, 그리스는 처음에 풍자잡지에 만화를 기고하면서 연명했다. 이것만으로는 안되겠다 싶었던 그는 1912년 미술가로서 화려한 데뷔를 하는데,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사조, 큐비즘 계열의 화풍으로 쏘였다. 그후 그는 큐비즘 화단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후 6년 동안에 걸쳐 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이들은 모두 큐비즘 계열의 작품들로서 예컨대 어머니의 초상, 피카소의 초상, 그리고 미술평론가 모리스 레이날의 초상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점차 그의 그림은 우아한 기풍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가 날퍼지고 보다 장식적으로 변해 갔다. 반면 데생에서는 조각풍의 양감을 유지했는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그리스는 애초의 筆痕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1921년 작품인 예리한 연필로 그려낸 화상 칸와일러 초상에서 약여하다.

큐비즘이 급속도로 명망을 획득하면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일약 유명 화가로 자리잡았지만, 그리스에게는 그런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1차대전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고, 그 후 갑작스런 병에 시달리다 1972년 4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자 그린은 그리스의 삶을 추적함에 있어 단순히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전후좌우를 오고가면서 직조하고 있다. 그리스의 작품 그 자체에 대한 해설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그것의 예술적, 문화적, 철학적 함의를 추적하고 있고 역시 그 작품이 탄생하던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도 고려하고 있다. 그린은 엄격한 냉정함을 갖고서 한 개인의 작품내에 आरो새겨진 복잡한 요소들을 적시해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화가에 대한 감동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그린의 주장의 핵심은 아폴리네르가 말했듯, 우리는 오늘도 “논리의 화신”(demon of logic)으로서의 그리스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

이다. 다시말해 그리스는 우리가 피카소나 브라크를 재해석하고자 할 때, 그 재해석의 논리적 준거를 제시하는 존재로 살아 숨쉬는 점이다.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의 예술은 이전의 해설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한편 훨씬 복잡하다고 본다. 나아가 그리스와 관계를 맺었던 두 畫商, 로젠버그와 칸와일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만 한다. 이들은 그리스에 대한 최초의 비평가들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그리스에 대한 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리스에 대한 평가는 작품 비평을 위한 1차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그리스가 1차대전 후의 “질서외의 요청”에 반응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그리스는 프랑스 화단의 분망함—또는 혼란한 상황에 독일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이른바 플라톤적 예술가로 재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의 네번째, 또는 다섯번째 글에서부터 저자 그린의 큐비즘에 대한 박학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 작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이끌다보니 나무는 환히 보이는데 숲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탕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기에 이른다. 제시되었던 논의의 주제는 여러 부수적인 논의들 때문에 결가지로 빠지고 만다. 그 가운데 몇몇 논의들은 아직 미해결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이어서 그 혼란을 더한다. 아마 저자는 그리스를 논하면서 이와함께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불거지게 밝히고 싶은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자칫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자의 정밀한 학술적인 논의가 그리스 화풍의 발전을 제대로 추적한 최선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SEOUL BOOK MAP

서울북맵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서울·북·맵」

이 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 도서관에 관한 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서점·도서관 완벽가이드

- | | |
|--|--|
| <p>1 서점가 지도
주요 서점들의 권역별, 거리별 상세지도</p> <p>2 대형서점 가이드
16개 대형서점의 기본테마 및 취급도서 비교
22개 구별 주요 신간서점 소개 및 지도 삽입 올가이드</p> <p>3 전문서점 가이드
4개 분야 28개 항목의 전문서점 160개 총망라</p> | <p>4 대형도서관 가이드
2개 대형도서관과 1개 대형 자료관의 이용데이터
서울지역 공공도서관·대학 도서관·청소년 독서시설 일람</p> <p>5 전문도서관 가이드
6개 분야 46개 항목의 전문도서관(자료센터)/ 200개 총망라</p> <p>조경환 편저
정가 4,500원</p> |
|--|--|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